

민주·조국혁신, 22대서 검찰개혁 입법 연대 강화

양당 주최 검찰개혁 토론회

‘수사·기소 분리’ 입법 예고
“시대적 책임, 반드시 완수”
“법사위원장 맡아 3차 개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8일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고 불리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양당이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나서기로 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검찰 제도가 다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황은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제21대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법 등 법안이 발의되었고, 검찰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검찰개혁 동력 상실과 전략의 부재로 개혁이 실패했다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은하 원내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지적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관련 입법을 다시 추진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개혁’을 골자로 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이번 총선 공

약으로 내세웠다.

조국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정적의 잘못된 혐미경처럼 들여다 보면서 권력자를 잘못엔 눈감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입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

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에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 TF(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도 “임시 권한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검찰은 본연의 기능, 공소를 제기하는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게 핵심”이라며 “독립된 검찰기구를 도입해서 검

찰과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야당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3차 검찰개혁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법률 자체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문언을 둘러싼 해석 논란과 행정 입법권 남용의 여지를 차단했어야 했다”고 입법 미비를 꼬집었다.

서 교수는 따라서 “22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로 별건 수사 차단 △검사의 법무부 파견·법무부 보직자 임명 금지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특별수사기구로 이양 △수사 업무 종사 희망 검사 특별수사기구로 이동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선 검사장 직선제, 기소대배심을 통한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 강화, 수사기관의 다변화, 검찰의 언론 통제 방지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박지원, 국회의장 경선 불출마… “지금은 나설 때 아냐”

조정식·우원식·정성호·추미애 출마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사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8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그동안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당의 좋은 국회의장 후보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저도 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나라를 살리고 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치러지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조정식·우원식·정성호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등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다음 달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尹, 실효성 있는 국정쇄신책 마련해야”

“민생회복 조치 검토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8일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조치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민생을 살려라,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명하셨습니다”며 “실효성 있는 국정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기조 변화와 민생 중심의 국정으로 희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망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민생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였다. 1월 실질임금은 작년 대비 무려 11.1% 하락했다. 가만히 있는데 월급이 10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이라며 “고금리로 이자부담은 늘고 소득은 줄고 체감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악화된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도 처방이 효과 없으면 치료법 그리고 약을 바꾼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 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관리 강화”

지방재정분석 연 2회로 늘리기로 오늘 전남도청서 ‘재정관리 워크숍’

정부가 8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재정 분석에 더해 연중 재정 분석을 추가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연중 재정분석 도입 등 개선 사항을 포함한 ‘2024년 지방재정분석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석 제도는 243개 지자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재정 분석은 결산 기준으로 연 1회(매년 11월) 실시해 신속한 정책 환류(피드백)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연중 재정 분석을 추가해 회계연도 중인 오는 7월까지 예산 자료를 기준으로 지자체 재정을 분석하기로 했다.

올해는 현금성복지비율 등 6개 지표를 6월 말 예산 기준으로 분석하고, 지자체

에 개선 보고서를 제공해 재정관리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재정분석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연중 예산 분석을 5월과 7월로 늘려 총 3회 재정 분석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재정분석 우수단체 선정 시 종합점수 분야 외에 개선도 분야를 신설하고, 지자체 노력도 평가해 적극적인 재정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18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도 확보해 재정분석 우수단체에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에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9일부터 10일까지 전남도청 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는 ‘2024년 지자체 재정관리 담당자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워크숍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관리 담당자가 참석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윤, 이재명 입원 앞두고 안부 전화… 핫라인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입원 치료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했다.

두 사람이 영수회담 이후 연락을 주고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이재

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공지했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직접 연락을 주고 받자, 휴대전화를 통한 ‘핫라인’이 구축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준호 “호남의 목소리 중앙에 전달”

민주당 원내부대표 선임

정준호(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2대 국회 1기 민주당 원내대표단 부대표로 선임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22대 국회 1기 민주당 원내대표단 22명을 구성하고 정 당선인을 원내대표단 부대표로 선임했다.

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신임 원내대표

단과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원내부대표 첫 일정을 소화했다.

정 당선인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으로서 호남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단 출범 이후 뉴스 ‘헤드라인’부터 달라진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고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이 대표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를 걸어 함께 국정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병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떠난다. 민주당은 “총선으로 미뤄 온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복귀 후 16일부터 정상적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각오를 밝혔다.

정 당선인은 광주 각화초, 각화중, 동신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역구인 말바우시장 곁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 상인들과 주민들의 법률 상담을 통해 ‘말바우 변호사’로 불렸다.

22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에 출마해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1980년생인 정 당선인은 올해 43세로 지역 당선인 중 유일한 40대다. 김은지 기자